

# 봄철 서점가에 온갖 '우리 자연' 만발

## 한국에 터잡은 꽃·나무·나비·새 등 '자연알기' 잇따라

식목일이 들어 있으며 유럽의 달이기도 한 4월부터 초록의 싹들은 경이롭게 일어나고 봄은 시작된다. 때맞춰 서점가에도 우리 강산에 터를 잡고 생명을 틔워온 꽃과 나무 새 등 온갖 자연을 담은 사진백과들이 만발해 있다.

우리의 꽃, 들꽃, 버섯, 야생란, 나무 같은 식물에서부터 한국의 곤충, 나비, 새, 민물고기 등 동물과 백두산이나 지리산 같은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담은 것에 이르기까지 수십종의 다양한 책들이 생명의 계절임을 일깨워 주는 시기다.

### 들꽃·버섯·나무 등 다양한 소재 등장

최근 새롭게 나온 자연 사진백과 가운데 젊은 식물학자 이유미씨가 나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써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가지」(현암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들어와 그 정서까지 우리것처럼 변한 나무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우리' 나무 100가지를 선정해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단순한 백과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모양새가 아름다워 가꾸고 싶은 나무'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 '산과 들에서 자주 만나는 나무' '쓰임새가 요긴한 나무' '우리나라를 대표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무' 등 알기 쉬운 설명식 분류로 쉽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 가운데 버즘나무는 우리나라 가로수 중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플라타너스의 우리말 이름이다. 잎이 넓어 무더운 여름날엔 싱싱한 그늘을 드리우고 5월엔

우리의 꽃이나 나무 새 곤충 등 자연의 모습을 담은 수십종의 사진백과들이 생명의 계절 봄을 알리고 있다. 도시화 속에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자연을 생생하게 재현시켜 놓은 이들 책은 이전의 딱딱한 자연도감과 달리 일반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쉽게 풀이한 글과 다채로운 편집으로 손길을 끌어당긴다.

방울처럼 화려한 꽃들이 달리며,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갈색 낙엽으로 도심 속에 낭만을 제공하는가 하면 추위에 강하고 대기오염에도 끄떡없이 견뎌낸다고 설명한다. 어린잎의 뒷면에 털이 많이 나 인체에 해로워 가로수를 교체해야 된다는 세간의 주장에, 저자는 털없는 개체로 육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능소화 조팝나무 붓순나무 쥐똥나무 붉나무 화살나무 팔배나무 가래나무 뽕나무 망개나무 사스래나무 등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나무들의 특징과 쓰임새, 분포 등을 이야기하듯 술술 풀어나간 것도 우리 나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제일의 명산으로 꼽히는 지리산에 피고지는 야생화들을 담은 「지리산의 꽃」(문순화·송기엽 지음, 평화출판사)은 계절마다 광대한 지리산에 장관을 이루



우리 강산에 터를 잡은 꽃과 나무 새 등 온갖 자연을 담은 사진백과 출간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내는 아름다운 식물들을 선명한 사진으로 재현한다. 두 사진작가가 1년여 동안 지리산 계곡을 오르내리며 담은 이 사진집에는 200여종의 지리산 식물 가운데 학술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난 160여종의 야생화를 골랐다.

이른 봄의 동백나무꽃 살구꽃 피제비꽃 처녀치마, 여름의 복주머니꽃 털중나리 오수리원추리, 가을의 용담 낙동구절초 까실부쟁이, 겨울의 낙엽진 나뭇가지 설화 등 자연 속에 살아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들꽃이 우리 자연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킨다.

또 사진작가 이경서씨가 10여년간 한국의 야생란을 찾아다니며 기록한 「한국의 야생란」

(난과 생활사)은 좀처럼 보기드문 우리나라의 야생란 60여종을 소개하고 있다. 애기제비란. 제주무엽란 탐라란 한라천마 등 제주도 난초들의 청초한 모습이 각각의 특징과 함께 소개돼 있다. “숲속에서 하얀 갈매기가 떼지어 나는 듯한 모양의 갈매기난초를 본 후 제주도 곳곳을 헤매며 난초 찍는 일에 빠져들었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얼마전 '백두산 사계와 야생동식물전' 전시회를 통해 선보였던 사진들을 책으로 묶은 「백두산의 사계」(강위원 지음, 신유) 「백두산의 야생동식물」(왕영 지음, 신유)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 서려 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경관

### 막스 베버: 사회학적 사유의 길

HN 류겐 지음/박재 옮김/208면/5,000원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와 더불어 20세기의 사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독일 학자 막스 베버의 생애를 담고 있는 전기물. 주위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관련 사진 등이 생동감 있는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 인식론(수정판)

J. 해선 지음/이강조 옮김/224면/5,500원

인식론 일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설서로 역사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서술되었다. 시대와 그 시대를 지배한 사상과의 상호 연관 관계를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이 책은 사상은 시대의 아들이라는 명제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 토미스트 실재론과 인식 비판

E. 질송 지음/이재룡 옮김/256면/6,500원

단일 학파 또는 조류로서는 현대의 가장 지배적인 학파를 형성했던 신-토미즘(Neo-Thomism)의 중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토미즘 인식론 분야의 학문적 완성도를 측정하는 시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 서양 고대 철학의 세계

한국 서양 고전 철학회 역음/432면/11,000원

서양 고대 철학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서울대 박홍규(朴洪奎) 교수의 사상 체계와 업적을 기리는 추모 논문집. 폭넓은 주제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양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 4월부터 종이값 큰폭으로 인상

## 서적지 9.8% 등... 6월초 다시 인상 예정

신문용지를 비롯한 인쇄용지가 4월부터 일제히 오른다. 제지업협회에 따르면 인쇄용지의 경우 서적지 증질지 아트지가 각각 8.9% 백상지 9.8% 신문용지 16%가 4월 1일부터 인상된다.

제지업계는 국제펄프 가격의 계속된 폭등, 종이제조에 필요한 풀(스타치)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묶인 데다 국내 펄프현상까지 나타나

종이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종이수요가 급증하는 오는 6월초 지방자치제 선거때 또 한차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출판사들마다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 25% 인상에 이어 4개월만에 다시 오른 것으로 출판사들의 제작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 간행물윤리위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제17차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했다. 문학(4종) 철학(2종) 역사(3종) 정치(2종) 경제경영(2종) 사회(1종) 과학(3종) 교양(8종) 아동(5종) 등 30종. 분야별 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문학: 「눈물에 어리는 하늘그림자」(오세영, 현대문학) 「수줍은 아웃사이더의 고백」(최윤, 문학동네) 「아버지 팔봉 김기진과 나의 신앙」(김복희, 정우사) 「텔리가의 빈집 외」(랜 패드 윌슨, 서울미디어) ▲철학: 「행복의 윤리학(고범서, 소화) 「철학풀이 철학살이」(이왕주, 민음사) ▲역사: 「아버지가 들려주는 세계사이야기 1·2」(H.W. 반론, 들녘) 「한국사명인전(1-3)」(이은직, 일빛) 「지중해문명산책」(김진경, 지식산업사) ▲정치: 「미리 가본 통일한국」(공성진 외, 동화) 「사람과 정치」(라종일, 상경사) ▲경제경영: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토드 부크홀츠, 김영사) 「세계비즈니스 기행」(강영수 외, 사계절) ▲사회: 「워싱턴 전망대」(정일화, 크리) ▲과학: 「쉽게 읽는 카오스」(아이하라 가스유키, 한뫼) 「과학의 세계, 미지의 세계 1」(아이작 아시모프, 고려원미디어)

어) 「쉽게 찾는 우리꽃(1-3)」(김태정, 현암사) ▲교양: 「고구려이야기」(강운동, 범조사) 「알기쉽게 풀어쓴 땅이름 나라알고」(오홍석, 고려원미디어) 「인물로 보는 중국역사사(立問祥介 외, 신원문화사) 「젓가락으로 들어 올린 지구」(최노석, 통진) 「사랑으로 밝힌 생명의 등불」(알베르트 슈바이처, 고려원미디어) 「재미있는 한자여행」(정석원, 김영사)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박숙희 외, 서운관) 「세계를 빛낸 사람들(1-4)」(게오르그 포프, 온누리) ▲아동: 「아인슈타인과 떠나는 시간과 공간여행」(러셀 스태나드, 지경사) 「대해커를 잡아라」(이진우, 국민서관) 「어린이 글짓기 소프트 200」(이탄 외, 문학아카데미) 「안데르센 동화전집(1-7)」(안데르센, 한뫼) 「시골소년 무승이의 땅힘」(박완서, 한양출판)

### 애서가클럽 '해방도서전시회' 개최

한국애서가클럽(회장 여승구)은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해방도서전시회' 및 '95서울 '古書전시회'를 4월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로구 공평아트센터 1층에서 갖는다.

과 독특한 기후로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야생 동식물들을 사진으로나마 접할 수 있게 해준다.

강위원교수(경북대 사진영상학)가 여섯차례에 걸쳐 촬영한 「백두산의 사계」에는 계절마다 장엄하고 신비스런 위용을 독특한 모습으로 드러내곤 하는 백두산의 진수를 담아내고 있다. 장군봉 백운봉 천문봉 화엄봉 등 수많은 영봉들의 특징적인 얼굴, 천지의 형상과 함께 인적이 닿지 않는 고원 위에 곧게 뻗은 적송이나 계곡 위에 핀 노란만병초 등 식물들의 원초적인 생명감을 느낄 수 있다.

「중국 길림성 장백산자연보호구 관리국 생물촬영사」라는 직함을 가진 왕영의 「백두산의 야생 동식물」에는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백두산호랑이와 「백두산의 삼보」 중 하나로 꼽히는 대륙사슴 등의 동물, 원시의 혼효림에 서식하는 큰오색딱따구리 먹황새 같은 조류와 노루궁둥이 자주초롱꽃 등 다양한 식물도 백두산의 특별한 자연과 어우러져 색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 기획 시리즈로 출판사들마다 관심

최근 나온 사진집 형식의 책 외에도 우리 자연에 대한 관심은 이미 하나의 출판장르로 자리잡을 만큼 많은 책들로 서점에서 볼 수 있다. 현암사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로 「우리꽃 백가지」(김태정 지음) 「우리 태양계」(이향순 지음) 「우리 나비 백가지」(김정환 글, 이원규 사진) 「백두산의 우리꽃」(김태정 글, 사진) 「우리 새 백가지」(이우신 글, 김수만 사진) 「우리 민물고기 백가지」(최기철

글, 이원규 사진) 등을 펴냈으며 계속해서 「깊은문화」 등 우리 자연을 내용으로 하는 책들을 출간할 예정이다. 또 「쉽게 찾는」 핸드북시리즈로는 「우리 꽃 봄·여름·가을·겨울」(김태정 글, 사진) 「우리 나비」(이원규 글, 사진) 「우리 곤충」(이원규 글, 사진)을 선보였다.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 시리즈 가운데 「한국의 자연」부문에는 「집에서 기르는 야생화」 「약이 되는 야생초」 「약용식물」 「한국의 동굴」 「한국의 텃새」 「한국의 철새」 「한국의 곤충」 「고산식물」 「한국의 호수」 「민물고기」 등 10여종의 책을 내놓았다. 또 평화출판사에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시리즈로 「한국의 야생화」(송기엽 지음)와 「한국 야생조류」(서일성 지음) 등의 사진집으로 우리 자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시화 속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우리의 자연을 생생하게 재현시켜 놓은 이러한 사진백과 출판은 이전의 딱딱한 체계를 갖춘 자연도감과는 달리 일반 독자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한 글과 다양한 편집형태로 독자들의 손길을 잡아당기고 있다.

이같은 「우리 자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좀더 구체화시켜, 이데면 「백두산호랑이」를 집중 탐구해 다큐멘터리식으로 엮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상당한 제작기간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편집형태로 부가가치를 높여 '상품화'하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소재인 만큼 CD롬 타이틀화 등 전자출판으로의 다양한 기획도 기대해 볼만하다. — 김지원 기자



# 아카데미 유아교육동화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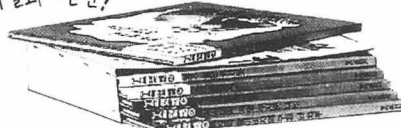
영역별 연령별

## 아카데미 유아교육동화 **리눅리눅**으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알콩달콩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1) MBC 유아프로그램 '뽀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2)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3)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4)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5)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날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